1. **선교적교회**

선교적 교회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가 처한 문화적 환경과 지역사회를 중시하는 관점이 거론되었다. 지역 사회의 문화를 선교적 상황으로 수용하는 태도로써 그 교회의 상황에서 독특한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는 과정을 선교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Ed Stezer의 해석에 의하면,

*“읽은 자를 주목하는 교회 성장 (Church Growth), 통전적(Holistic) 구조를 강조하는 건강한 교회 (Church Healthy)와는 다른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자신의 상황에서 자신의 교회에 적합한 하나님의 독특한 비전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 선교적 교회 (Missional Church)의 핵심 <*Ed Stezer and David Puturan, Breaking the Missional Code; your church can become a missionary in your community, p.48>”이라고 해석한다.

선교적 교회의 학문적 논의와 발전은, 1998년 북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GOCN (Gospel and Our Culture Network)의 종합적 이론인 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가 시발점이다. 레슬리 뉴비긴 (Lesslie Newbigin)이 평생의 인도사역을 마친 후 선교 파송국인 영국으로 귀국한 후 맞딱뜨린 영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구 기독교의 선교현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선교적 교회론의 주도적인 선교신학자인 데럴 구더(Darrell L. Guder)는 선교적 교회를 구성하는 세가지 요인으로, ‘성서적 전승’ (Biblical Tradition), ‘문화적 다양성’(Cultural Context), ‘지역사회’(Community)를 제안한다. 이러한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친밀성 (예배를 통한 성령의 내적소통)과 공적 영성 (이웃사랑)이 함께 뿌리와 줄기같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선교적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안에서 많은 감사와 승리의 경험들이 이어져야 한다. 선교적 교회론은 궁극적으로 은혜를 입고 감사할 줄 아는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론이다.”* <이학준, 한국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 공적 영성 / 목회와 신학 2013년, 3월p.73-74>

한국교회가 소유한 장점인 예배와 기도가 ‘공적 영성’ 으로 나타날 때 선교적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는 북미주 선교적 교회 현상이 드러난 20여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적 교회 특징을 종합한 것을 통해서 선교적 교회를 더 실제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1. 분명한 선교적 소명을 발견한다. (Missional Vocation)*

*2. 선교에 대한 성서적 기초와 제자도가 세워져야 한다. (Biblical Foundation and Discipleship)*

*3. 대조 사회로서의 위험을 감수한다. (Taking Risk as a Contrast Community)*

*4.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실현하는 구체적 실천이 있다 (Practices that Demonstrates God’s Intent for the World)*

*5. 공적 증거로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 (Worship as Public Witness)*

*6. 성령에 대한 의존적 사역을 한다. (Dependence on the Holy Spirit)*

*7. 하나님의 통치를 향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Pointing Toward the Reign of God)*

*8. 선교적 귄위 (Missional Authority)*

<이상훈, 북미 교회 갱신운동의 흐름에서 본 선교적 교회와 사역원리, 목회와 신학, 2016.12>

1. **선교적 교회 사역원리**

북미 선교적 교회 운동을 지향하고 100여개 교회를 방문하여 그 가운데 22개 교회를 중심으로 분석한 이상훈은 선교적 교회 사역을 세가지로 종합한다.

*“첫째,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자기 존재와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기반으로 세워진다. 둘째, 선교적 교회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내적 사역이 이뤄질 때 가능하다. 셋째, 선교적 존재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공동체가 세워진 교회는 자연스럽게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선교사역에 동참하게 된다.”* <이상훈, Ibid., 2016.12>

선교적 교회로 갱신한 거의 모든 교회들이 규모와 상관없이 매우 역동적인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관찰되었다. 매우 특이한 현상은 대다수의 선교적 교회가 현재 담임목사에 의해서 개척되었고, 회중의 평균 연령이 20-30대로 젊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이점은 다음세대를 위한 젊은 사역자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변화된 새로운 시대 문화를 이해하면서, 다음 세대를 품고 사역할 수 있는 사역철학과 목회 패러다임이 개발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탐방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선교적 교회는 하나의 획일적 모델이나 패턴으로 정형화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선교적 교회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놓여있는 지역사회에서 앞서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식별하고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최우선적 과제로 여긴다. 즉, 선교적 교회는 하나의 탁월한 사역을 모델로 삼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있는 지역 위치와 성도들의 특징과 은사, 부르심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자신에게 부여된 고유한 사명을 찾고 그 것에 헌신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것이 교회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선교적 교회를 표현하고 있는 이유이다.”* <이상훈, Ibid., 143>

1. **선교적 교회 리더십**

*“전통적인 패러다임에서 신앙 생활하는 구성원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 공동체로 변혁 (Transforming)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변화 (Changing)시키기 위해 요청되는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선교적 리더십이다.”* <한국선교 신학회편, 선교적 교회론과 한국교회, 전석재, 선교적 교회의 리더십, p.289>

찰스 밴 앵겐 (Charles Van Engen)은 선교적 교회 리더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리더십은 하나의 연합적 (Corporate Event)사건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명과 뜻에 따라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며, 세상과 그들이 선교하는 삶의 현장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성령으로 감동되어 동참하도록 그들을 독려하는 지도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가는 연합된 사건이다.”* <Charles Van Engen / 임윤택 역, God’s Missionary People,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 p.278-279>

선교적 교회 리더십은 믿음의 공동체가 몇몇 사람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를 세우고, 그 리더들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영적 은사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할 때 일어나는 ‘연합적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런 리더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선교하러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창의적이고, 비전이 있고, 적극적이며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Charles Van Engen, Ibid., 279> 이 리더십은 ‘성육신적 리더십’ (Incarnational Leadership) 과 ‘섬김의 리더십’ (Servant Leadership) 으로 특징지어 진다. <전석재, 선교적 교회 리더십, p. 290-291> 이러한 리더십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으며, 세상으로 보냄 받은 사도적 임무를 수행하는 리더십으로 해석된다.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선교적 상상력을 발휘하고 이를 세상으로 방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루어가는 영향력이다. 이런 리더십으로 인해서 교회 구성원들이 교회를 자신들의 만족과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종교적 상품 판매처로 만들지 않고, 제자로서 개인적으로 선교적인 삶을 구현하며 공동체적으로 선교적인 사명을 통해 교회 본질을 추구하게 되어 간다고 본다.

선교적 교회 리더십에서 록스버그 (Alan J. Roxburgh)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교를 위해 준비시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선교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비결은 선교적 리더십에 달려 있다고 보며, 이 리더십은 성령에 의해서 공급되고 인도되어 진다고 주장한다.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과 그 사건에서 이루어진 선교적 현상을 새롭게 도전하는 선교적 교회로 해석하고 결단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에 주목하라고 한다. 또한 에베소서 4장 11절-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목회 지도력의 목표와 기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선교적 리더십을 자연스럽게 적용한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이 말하는 다양한 은사들과 기능들을 표현한 리더십 팀을 제안한다. <록스버그, 선교적 리더십 / 선교적 교회: 북미교회 파송을 위한 비전 p. 272-319>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선교 공동체로서의 교회 공동체적 방향과 리더십의 역할에 대해서 전통적인 목회 리더십에서 사도적 리더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과거 전통적인 교파 중심의 교단 리더십과 비 상황적인 신학교육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있다. 사도적 정체성을 가진 삶의 방식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1. **선교적 교회 목회 리더십**

한국에서 조사된 선교적 교회의 실체속에서 드러난 선교적 교회 리더십을 조사한 한국일 교수는 선교적 목회에 적합한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지역사회로 부터 분리된 개 교회 중심의 교회론을 지향하였으며 지역사회에 전도는 하지만 지역사회에 관심은 없는 ‘친교 없는 전도와 선교’활동을 해왔다. 이런 자기 중심적 교회는 성장시기에는, 즉 지역사회와 주민들로부터 교회가 신뢰를 받던 시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고, 문제로 노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저성장 시대로 들어가면서 지역사회로 부터 개 교회가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일, 선교적 교회의 이론과 실제, p.314>

목회자가 교회 영역을 넘어서 지역사회로 나가 주민들을 만나게 되는 활동을 ‘선교적 목회’ 라고 보면서, *“선교적 교회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목회활동의 영역을 확장하고 제도권으로부터 운동성을 회복하는 선교적 목회 리더십을 형성해야 한다”* <한국일, Ibid., p.317>고 강조한다.

지난 10여년동안, 한국교회의 선교적 교회 실제 사례를 탐구하기 위하여, 전국의 교회들을 탐방하고 연구한 후 현장에서 확인된 선교적 목회 리더십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영성에 기초한 진정한 리더십; 오늘날과 같은 불신과 저성장 시대에 진정성의 리더십은 교회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 변화가 지역사회까지 미치는 목회자의 역량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진정성은 한 마디로 목회자가 가진 ‘교회와 세상, 사람에 대한 진실한 열정’이다. 목회자의 진실함과 열정으로 이루어진 진정한 리더십은 그의 목회관을 형성해 온 일관성 있는 목회 소신과도 깊은 연관을 갖는다.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형성되어 온 목회자의 목회철학과 소신이 그의 목회를 일관되게 이끌어간다. 이러한 선교적 목회 리더십의 기초로 영성에 기초한 진정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정하고 싶다.*

*둘째, 개척정신의 리더십; 선교적 리더십은 전혀 기반이 없는 선교 현장에서 시작하는 것과 같이 선교 운동을 일으키는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이 필요하다. 김용기 장로의 사례(양평국수교회, 부천 새롬교회, 언정 율현교회처럼,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을 가진 목회자는 기존의 제도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필요성에 따라 매우 창의적으로 접근하면서 다양한 선교적 목회 형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셋째, 소통과 동행 (협력) 리더십; 선교는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는 행위이다. 선교는 결코 일방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세상을 이해하고 시대와 문화, 상황의 특징을 살피는 섬세함이 필요하다. 선교적 교회를 실현하는 목회적 리더십에는 목회자의 권위에 의존한 수직적, 일방적인 소통의 관계를 지양하고 성도들과 함께하여 평등하게 서로 소통하는 관계를 추구한다. 선교적이란 용어 안에는 타자에 대한 열린 태도와 소통의 의미가 담겨있다.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의 선교는 세상을 향해 열린 태도를 가지며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소통하지 않으면 실천이 불가능하다.*

*넷째, 섬김과 세워주는 리더십; 선교적 목회에서는 목회자와 성도가 동역자의 관계로 재설정 된다. 선교적 목회 리더십에서는 성도의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며 교회안에서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현장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를 양육하고 세워주는 일에서 목회자의 기쁨과 보람을 찾아야 한다. 목회자는 개인의 목회 비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한 목표를 향해 참여하는 성도들을 세심히 살피고 배려하며 그들의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함으로 성도를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활동에 중심으로 세우게 된다.”* <한국일, Ibid., p.320-337>

이러한 점에서, 서울의 한남 제일 교회 오창우 목사는 ‘나는 이 교회의 담임목사가 아닌 이 지역의 마을지기다’ 라고 선언한 후 지난 30년의 사역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변화 시킨 선교적 교회 목회 리더십의 모형이다.

1. **선교적교회 목회 리더십의 과제**

전통적인 교회가 어떻게 선교적 교회로 변화될 수 있는가? 그 변화가 어느 단계에 와 있을 때 선교적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선교적 교회의 모형과 이상은 어떠한 상태를 두고 말하는가?

*선교적 교회로의 변화를 위한 7가지 핵심요소:*

*1)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명확한 비전*

*2)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제자훈련*

*3)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한 긍정적인 분위기 형성*

*4) 선교적 리더십팀 조성*

*5) 갈등의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선교에 집중*

*6) 교회 재정에서의 청지기 사명 감당*

*7) 선교적 교회로의 변화 과정에서의 격려*

<Rich Rouse & Craig Van Gelder, A Field Guide for the Missional Congregation: Embarking on a Journey of Transformation, p.42-43>

4단계에서 제시되는 선교적 리더십 팀 조성이 이루어 질 때, 공동체적 갈등을 극복하여 선교가 정책적으로 실행에 옮겨진다. 밴 겔더는 선교적 교회 리더십을 매우 강조하면서, 리더십이야 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선교적 교회를 이끄는 핵심어라고 보았다.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의 리더십”* <Van Gelder, The Ministry of the Missional Church, p.19>이다.

선교적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발전되는 과정이 지속되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라는 것이다. 이 리더십은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1)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2)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Van Gelder, Ibid., p.59-60>고 강조한다. 첫 번째 질문은 믿음과 분별력을 필요로 하고 두번째 질문은 지혜와 계획을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종합하면 선교적 리더십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 지를 찾는 실제적, 공동체적 영성을 지향한다.”* <한국선교 신학회편, 선교적 교회론과 한국교회, 전석재, 이병옥: 크레이그 밴 겔더 (Craig Van Gelder)의 선교적 교회론, p.112> 그는 이러한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한 선교적 리더십을 특정 인물이나 조직, 프로그램으로만 보지 않고 그러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과정 (Process)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그 과정은,

*1) 교회 공동체가 성령에 이끌리는 공동체로서, 공동으로 분별하고 논의하는 것이며,*

*2) 교회 공동체가 가진, 역사적, 상황적 형편에 따라 독특한 신학적 관점을 개발하며,*

*3)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이해하는 다양한 사회이론과 사회과학 방법론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4) 교회가 결과적으로 취하는 행동은 전략적이어야 한다.*

밴겔드는 이 네가지 과정은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만 하되, 이 넷이 시간적 순서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Craig Van Gelder / 최동구역, The Essence of the Church: A Community Created by the Spirit, 교회의 본질>

1. **선교적 교회 목회 리더십 실제사례**
2. 신학 훈련과 사역

문교부 유학 시험을 치르고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중 한국사회에 기대하던 민주 사회가 뒷걸음 치고 정치적 격변을 겪고 보면서 미국 장로교(PCUSA) 신학교 중에 하나인, 중서부에 위치한 조그만한 신학교(Univ of dubuque Theological Seminary)에 가족을 데리고 1981년 1월 미국에 정착하게 되었다.

첫 학기 수업에서 과테말라에서 온 방문 교수로부터 해방신학 (Liberation Theology)을 공부할 수 있었다. 남미에서 생성된 해방신학은 당시 제 3세계 신학으로, 서구 신학계에 큰 반항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었다. 한국의 민중 신학의 창시자였던 서남동 교수에게 학부 논문 지도를 받으면서 인간화에 대해서 학부 논문을 쓰고 김관수 교수를 통해서 구할 수 있었던 금세이전 해방신학과 카톨릭에서 번역된 책을 접할 수 밖에 없었던 나로서는 뜻 밖의 기회였다. 호기심과 함께 생생한 현장의 모습에 들어가면서 이론적 배경을 접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연세대학교 연합신학 대학원에서 기독교 윤리를 전공(TH.M) 하면서, “라인홀드 니버”의 사랑과 정의 이해”관 논문을 썼던 나에게는 실제적인 현장 목소리를 들으면서 관련 분야를 접할 수 있었던 책이기도 했다. 동시에 신학생들과 교수들이 중심이 된 캠퍼스 타운의 첫 이민 목회 현장에서부터 구원론과 성서적 교회관에 입각한 복음주의적 목회를 하여 왔다.

북미 유학의 목표였던 박사과정을, 보스톤 대학교 대학원에서 M.L King 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었다. 킹의 교수였던 Walter G. Muelder 명예 교수의 강의와 킹의 학창시절 동료였던 cartwright 교수의 지도하에 킹의 ‘비폭력 사상과 사회 변화’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킹이 공부했던 현장에서 깊이 있게 할 수 있었던 시기였었다.

그때 나온, 레이건 대통령이 킹의 생일을 국가 기념 공휴일로 재정하여 공포할 때 였으므로, 그와 관련된 킹의 사상과 생애를 미주의 여러 언론이나 기독교 신문 그리고 재미 기독 학자 사회에서 발표하면서 학문적 이론을 실제적인 목회 현장에 조명 하기도 하였다.(그 사이 나도 모르게 한국에서부터 학문적 과제로 삼고 미국으로 왔던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의 양극화의 해결 문제를 이론과 실제 목회에서 점점 적용하게 된 것이다.) “인종 화합에 대한 한인 이민교회의 사명(The Korean Immigrant, LBA, Ph.D)이라는 논문을 쓰면서, 새로운 인식 전환과 사명 발견이 있었다.

논문을 쓰면서, L.A 4.29폭동 현장을 몇주간 탐방하는 가운데 이민 목회자로서 새로운 인식 전환과 사명 발견이 있었다. 1992년 4.29 폭동을 통하여 미국 한인 이민 사회가 받은 충격을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이민 목회 현장에서 이러한 사회적 도전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94년부터 목회 사역의 중점 가운데 하나로, 인종 화합의 과제를 가지고 인근의 흑인 교회와 함께 공동 예배를 드리면서 합창제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 인종화합 합창제로 지난 20여년동안 10회를 거치면서, 한’흑 관계에서 발전해서 이제는 한,흑,백,히 등 다민족이 정기적으로 친교 하며, 합창제를 함께하고 인종 화합의 무대가 되어 지역 사회에 발전을 가질 뿐 아니라 여러 지역으로 발전해 왔다.

1. 사회 정의를 위한 사회선교

한.흑 간의 화목은 당시 지역 한인 사회의 조그만한 가게들이 많이 모여 있던 리치몬드 시 동쪽의 흑인 밀집 저 소득 및 빈민촌 지역에 위치한 같은 교단의 흑인 교회를 선택해서 오랜 세월동안 형제 교회의 관계로 발전되어 왔다. 그 계기로 지역 흑인 사회와 지도자들과의 T.V 좌담회가 여러 번 있었으며, 그 영향으로 1997년도에는 Asian으로는 처음으로 Virginia 주 의회에서 개회 기도를 인도하기도 하였다. 인근의 여러 종족과의 합창제가 잘 정착되면서 인근의 백인, 히스패닉 교회와의 오랜 세월 지속적인 교류를 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지역 사회의 여러 타인종과의 유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갔다.

주 예수 교회 공동체가 시작된 1999년부터 교회는 담임목사의 목회 철학과 교인들의 일체된 훈련을 통해서, 지역사회 봉사 사역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다. 인종화합 합창제에서 매월 빈민 독고노인 수리, 매 주 토요일의 Hamel sup kitchen 인 먼로 공원 사역이 10년 넘게 정착하게 되면서 2004년 다목적 홀의 건립과 함께 매년 여름 1주일동안에는 Caritas(카리타스) 라는 Homeless 사역 기관을 통하여, 50여명의 노숙자들의 숙식을 돌보는 일을 2세들과 함께 온 교우들이 돌보게 되었다.

매년 여름의 단기선교도, 몇 회의 해외 선교를 제외하고는 중고등부 청년들이 아팔라치안 산맥 빈민 출신 선교 ASP(Applalachia Service project) 단체를 통해서 미국 인들과 함께 매년 계속해 오고 있는 중이다. 이런 교회의 지역 사회 봉사는 10여년 전부터도 “사랑과 정의를 위한 사회선교(Social Mission for Love and Justice)라는 모토화에 교회의 연령별 선교회와 2세들이 함께 동참해 오고 있다. 교회 공동체로 사명 있는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면서 ‘사랑과 정의’ 라고 하는 기독교 사회윤리의 양대 축을 바탕으로, 늘 성서해석과 사역 실천을 종합하는 가운데 균형 있고 계속해서 실천하면서 발전해 오고 있다.

지난 20여년동안 주중의 심도 깊은 제자반 교육이나 주일 아침의 ‘공동체 성경공부’ 반을 통해서 오랫동안 소그룹으로, 현재에는 공동체적 성경공부라는 매 주일 오전의 전체그룹 성서 연구를 통해서 영적 기초를 단단히 다지며, 일체감을 가진 양육, 훈련을 꾸준히 계속해 오고있다.

온 교우들이 빠짐없이 동참 할 수 있도록 stop for hunger 프로그램이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정기적인 헌혈, 등이 꾸준히 지속되었다. 거의 매년 개최된 ‘한국음식문화축제’ 같은 행사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친교하게 되었으며, 지난 10년간 지역 주민들의 운동 모임이 계속해서 다목적 체육관에서 있었고, 현재도 매주 지역 청소년들이 농구 교실 모임이 계속되고 있다. 더 나아가 한인 이민 사회를 위한 무궁화 한국학교, 여름 문화학교, 그리고 무궁화 시니어 센터 같은 지역 한인 사회 봉사 사역을 오랜 세월동안 섬겨왔다.

백인 보수층의 안정된 주거 및 상업이 활발한, 지역 주민들에게 교회 설비는 자주 활용되고 있으며, 체육관은 성인 및 아동 운동으로, 본당은 히스패닉의 결혼식 장소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 감나무 가로수와 소나무 뒷길로 교회 주변의 조경과 미화 환경은 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을 뿐 아니라, 교회의 사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건물확장을 통한 환경 변화는 지역 사회에서 함께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